

##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영혼에 대한 논의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을 바탕으로

정치외교학과 2011\*\*\*\*\* 홍성은

### 목차

#### 1. 서론

#### 2. 본론 - 일반론적 '영혼'과 플라톤의 '영혼'

##### 2-1. 플라톤의 영혼불멸설

##### 2-2.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탄생 배경

##### 2-3.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영혼에 대한 논의

#### 3. 결론

#### 4. 참고문헌

#### 1. 서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영혼 불멸'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제시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영혼의 문제란 참다운 선과 참다운 악이란 무엇인가이다.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악 또는 선이며, 이의 형식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영혼은 불멸하기에 신체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신체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플라톤의 의견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플라톤의 의견에 기초하여,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저서인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미 죽은 신체를 이어 붙여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 피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때 부여 받은 생명은 이미 죽었던 신체를 '생물'로 재탄생시키게 된다. 소설에서 '괴물' 혹은 '기계'로 언급되는 이 생명체는 엄연히 말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또한 이 생명체는 인간의 몸이 근원이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아, 감정,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다. 그렇지만 그의 몸과 생명은 자연의 법칙인 양성생식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 프랑켄슈타인에 인위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은 어떤 차원의 문제인 것일지에 대한 문제를 플라톤의 의견에 기초하여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 내용에 바탕을 두어,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괴물의 신체를 진정한 의미의 '신체'라 명하고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그런 괴물에게 플라톤의 이야기했던 '영혼'의 개념을 적용하여, 괴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우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영혼의 참다운 선과 악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

는가, 또한 영혼이 있다고 본다면 선과 악은 창조자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영혼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본고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동시에 이 두 책을 통한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일반론적 ‘영혼’과 플라톤의 ‘영혼’

일반적 의미로 영혼은 정신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생명의 원리이다. 이는 각 국가의 문화나 종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며, 그 존재 또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sup>1)</sup> 사전적 의미로 영혼은 죽은 사람의 넋 혹은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이다. 플라톤이 「파이돈」과 「국가론」에서 언급하는 영혼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부분에서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이는 일반적 의미인 생명의 원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는 이러한 생명의 원리에서 시작된 괴물에 대해 플라톤의 영혼의 개념을 적용하여 「프랑켄슈타인」을 해석할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계속해 ‘영혼’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에 대해 요약하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며, 영혼은 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은 상위 단계로 상승할 수도 있고, 하위 단계로 타락할 수도 있다. 그의 주장에서 ‘선’은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며, 선은 인간의 영혼을 상위 단계로 상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영혼의 눈으로 하여금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최상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또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혼에게 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바른 환경은 초기교육에 기초하는데, 교육의 순서는 영혼의 본성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초기 교육의 목적은 이성으로 알게 되는 선을 영혼에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인 사회란 각각의 영혼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사회에 공헌하고, 각자가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논의 중에서, 이 내용을 「프랑켄슈타인」과 연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덕은 영혼의 해체와 노예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올바른 노예화는 무엇인가’이다.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인간을 지배할 자격을 갖춘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통치원리를 가지고 있거나 외부 원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이에 바탕을 두고 「프랑켄슈타인」을 바라볼 때 소설에 나타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괴물의 관계가 일종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며, 이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서열이 바뀐다는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또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덕’이 「프랑켄슈타인」의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영혼의 해체’에서 기인하는지 또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1. 플라톤의 영혼불멸설

앞서 플라톤의 개념에서의 ‘영혼’에 대해 요약해보았다. 앞서 플라톤은 영혼이 신체에 깃드는 것이며,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신체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언급을 했

1) 「영혼」, 두산백과, 2017.6.10. 인용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496&cid=40942&categoryId=31534>

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국가론」에서 에르 신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르 신화는 아르메니우스의 아들인 에르가 죽은 뒤 12일 뒤에 살아나서 자신이 죽음의 과정에 있던 동안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영혼은 육체의 죽음 뒤에 심판을 받으며, 그 곳에서 축복 혹은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 새로운 삶을 택해 육체로 깃들여 지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육체로 다시 깃든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 갇힌다는 의미이며, 천국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이를 다시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삶은 미래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미래의 삶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혼불멸설’을 정리하자면, 플라톤은 내세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세의 인정은 영혼의 불멸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에 더하여 영혼은 신체에 들어 올 때 어떤 변형을 거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불멸한다.<sup>2)</sup>

## 2-2.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탄생 배경

「프랑켄슈타인」에서 대학교육을 위해 잉골슈타트로 향한 프랑켄슈타인은 자연과학, 그 중에서도 화학에 집중하여 연구한다. 학문의 세계에 깊게 심취한 그는 자연 과학의 이론과 실습에 통달하기에 이른다. 그 중 그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동물의 구조’이다. 당대에 그것이 신의 섭리라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자문한다. 그는 해부학에 바탕 하여 죽음을 알기 위해 부패를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과 죽음의 순서가 뒤바뀌는 과정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발생과 생명의 원인을 발견하고,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과 그 능력에 크게 도취되어 인간처럼 복잡하고 놀라운 동물을 만들고자 한다. 그는 ‘인간’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인간’은 실험의 속도 조절을 위해 거대한 체구로 설계되었으며, 그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재료-인간의 유골과 신체의 부분-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 작업의 과정에서 그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새로운 ‘종(種)’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을 창조자이자 존재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것, 행복하고 탁월할 본성을 지닌 수많은 존재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이가 가능하다면 죽어 부패한 시신에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결국 그의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 피조물의 외형은 추악했으며, 그는 그의 작업에 결과에 대해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 이후 생명을 부여받은 ‘괴물’은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sup>3)</sup>

이러한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의 탄생 배경에서, ‘괴물’이라 불리는 이 피조물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데서 우리는 이 피조물을 ‘생명체’라 칭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생명체’는 인간의 몸에서 근원했다는 데서 그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살아 움직이고, 자아와 감정이 있으며, 또한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설정이다. 불멸하는 영혼은 ‘육체’에 깃든다는 플라톤의 말에 근거하여 소설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도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플라톤 저, 천병희 역, 「국가론」, 숲, 2013, 10권

3) 메리 셸리 저, 한애경 역, 「프랑켄슈타인」, 을유문화사, 2013, 1부 3장

### 2-3.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영혼에 대한 논의

그렇다면 플라톤의 영혼 대한 내용에 기초하여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의 영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보고자 한다. 영혼은 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이며, 상위 단계로 상승하거나 하위 단계로 타락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괴물의 영혼은 하위 단계로 타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괴물이 가진 영혼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는 제일 먼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초기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바른 환경은 초기교육에 기초한다.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 낸 괴물에게는 어떠한 바른 환경도, 초기교육도 제공되지 않았다. 소설의 내용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들어 낸 작업실의 환경은 ‘화랑과 계단 때문에 다른 집과는 완전히 분리된 외딴 꼭대기 방’이다. 이어서 그는 그를 ‘감옥의 독방에 추악한 창조의 작업실’이라 칭한다. 생명체, 그 중에서도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시의 관점이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과학의 월권인 것이기에 프랑켄슈타인은 이를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앞의 서술에서만 보아도 이 ‘작업실’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며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영혼을 가진 생명체는 이 어둡고 열악한 작업실에서 깨어났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며, 그의 창조자마저도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려 줄 이 또한 없다. 만들어진 신체에서 태어났기에 거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초기 인지 수준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를 떠난 프랑켄슈타인의 행위는 유기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교육의 목적 또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초기교육의 목적은 이성으로 알게 되는 ‘선’을 영혼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선은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며 영혼을 상위 단계로 상승하게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괴물에게는 초기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초기교육이나 어떠한 선의 영향도 받지 못한 영혼은 그의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괴물과 괴물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비극으로 이끌고 가는 제 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프랑켄슈타인 2부에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과 조우하는 장면은 괴물의 영혼과 선과 악에 대해 논의할 만한 바탕이 되어준다.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을 창조자로 인정한다. 그에게 그는 주인이자 왕과도 같고, 순종할 대상이다. 이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처음 만들 때 그가 창조한 새로운 종(種)에 대한 기대와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이를 거부한다. 괴물은 자신을 ‘타락한 천사’라 칭하며, 자신은 원래 착한 존재였으며 영혼은 사랑과 자비로 빛났다고 이야기한다.<sup>4)</sup> 타락한 이후에서야 그는 그의 영혼이 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프랑켄슈타인이 그를 유기하지 않았다면 그가 선했던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이 깨어난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혼은 ‘불쌍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괴물’이었다. 그는 감각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다. 그리고 펠릭스의 가족을 관찰하며 감정과 언어, 지식, 선했던 일과 악한 일들에 대해 배워나간다. 유기당한 이 영혼은 펠릭스의 가족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일

4) 메리 셸리 저, 한애경 역, 「프랑켄슈타인」, 을유문화사, 2013, 2부 2장

종의 ‘초기교육’을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사회적인 것들-돈, 친구, 재산-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람과 다른 추악한 외모를 가졌으며, 사람의 본성 또한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스스로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펠릭스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 받는 데서 인간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악’으로 그의 영혼에 작용하게 된다.

괴물은 「실낙원」을 읽으며 아담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아담은 행복하고 변성하는 존재로 하느님에 손에 창조되어, 창조주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받았다. 이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초기교육’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괴물은 창조주에게 어떠한 특별한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 결국 선한 영혼이었으나 바른 환경과 초기교육의 부재는 그의 영혼을 악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론」의 영혼불멸설은 악에 물들면 모든 사물은 파괴된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나오는 괴물의 분노와 증오는 선했던 그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분노와 증오-이 이후 프랑켄슈타인이 저지르는 모든 살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프랑켄슈타인의 ‘창조행위’로 돌아온다.

이어서 프랑켄슈타인의 영혼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국가론」 글라우콘은 영혼을 부패시키는 악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방종, 비겁, 무지 등’과 그 밖에도 많은 것이 있다고 대답한다. 대표적으로 나온 이 네 가지 영혼을 부패시키는 악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창조하는 과정부터 그 이후까지의 모든 행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는 신의 섭리이며, 과학의 관점에서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탄생에 관여한 그의 행동은 ‘부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이나 계획 없이 그것을 계속 진행한 것은 ‘방종’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은 ‘비겁’이며, 자신이 창조한 생명체가 어떤 행동을 저지르지에 대한 예상도 하지 못한 것은 ‘무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영혼 또한 그가 생명체를 창조하고 그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부터 부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플라톤은 다양한 형태의 악덕이 영혼의 해체와 노예화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를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경우에 적용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를 주인이자 왕으로 칭하며, 순종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데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주인이고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노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라톤에 의하면 노예는 인간을 지배할 것을 갖춘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간을 지배할 것을 갖추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통치원리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외부 원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근거했을 때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을 지배할 어떤 것도 갖추지 않고 있다. 그에게는 괴물을 통제하거나 조정할 어떠한 통치원리도 없으며, 괴물의 존재를 숨김으로써 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외부 원리도 얻거나 수용하지 못한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3부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괴물은 이에 더욱 분노하여 프랑켄슈타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복수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분노와 증오를 보며 이제 자신이 프랑켄슈타인의 주인이며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노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괴물에게는 프랑켄슈타인을 지배할 어떠한 통치 원리나 외부 원리의

수용 과정이 없다. 결국 프랑켄슈타인과 괴물 둘 모두를 지배하는 것은 분노와 증오이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악덕 중 일부이며 가장 정도가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악덕은 그들의 영혼의 해체를 가져온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도 주인이거나 노예일 수 없다. 그들은 분노와 증오라는 악에 의해 노예화가 되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결국, 플라톤의 영혼불멸설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은 영혼에 대한 악의 작용과 그에 의한 영혼의 부패의 과정과 그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는 초기교육의 중요성과 선 혹은 덕성을 통해 영혼을 상위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교훈을 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3. 결론

‘영혼’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명확한 한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대상이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유나 그 존재를 밝혀내기 위한 과학적 탐구나 시도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사유와 탐구가 기초하고 있는 내용은 같다는 것이다. 영혼이란 인간에게 생명의 원리이며 마음의 작용을 하는 것, 인간에게 인간다운 속성을 부여하고 인간을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영혼’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영혼이다. 본고는 여기서 ‘마음의 작용’과 ‘인간다운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을 바탕으로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분석해 보았다. 전혀 다른 두 시대에 쓰인 철학서와 소설이 공통된 주제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 두 내용의 융합과 그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흥미로움을 넘어서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면, 플라톤의 「국가론」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인간성이라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인간다운 삶이란 플라톤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의롭고 선한 것을 지향하여 잠재되어있는 최상의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내세와 현세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삶을 위한 논의라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각각의 영혼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고, 이것이 각자가 필요한 것을 사회로부터 얻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이상적 국가론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우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인 메리 셸리가 살았던 시대가 여러 가지 담론과 사상들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사회구조나 상황에 더불어 그녀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개인적 불운이나 불행, 비전형적인 가정생활과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은 그녀의 소설에 깊이 녹아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플라톤의 영혼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악이나 영혼의 부패, 그로 인한 비극적 결말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 4. 참고 문헌

메리 셸리 저, 한애경 역, 「프랑켄슈타인」, 을유문화사, 2013

플라톤 저, 천병희 역, 「국가론」, 숲, 2013

플라톤 저, 천병희 역, 「소크라테스의 변론 : 크리톤/파이돈」, 2017